

광주시교육청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브랜드화로 교육 경쟁력 높인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12월 10일, 상록회관(서구 농성동 소재)에서 2009학년도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보고회를 가졌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3개교, 시지정 3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상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에 명상과 요가를 통한 마음수련과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입시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집중력 강화훈련으로 학

업능력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상학교 박현주 교사는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명상을 정규수업에 도입하게 됐다”며 “명상은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는 2009학년도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의 교

장 및 업무 담당 교사 30여명과 2010학년도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인 7개교 교원 35명, 관내 고등학교 교장 및 교원 9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해온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시교육청 장학진흥과 최운길 과장은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자랑스

러워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정과제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들의 열의를 바탕으로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운영하여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불꺼지지 않는 전원학교 야간강좌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에서 학교는 작지만 강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로 운영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2일 경북 도내 12개 전원학교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자리 한 가운데, 성주 초전중학교에서 열리는 ‘전원학교 야간강좌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성주 초전중학교는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농산어촌 전

원학교’로 선정된 학교로, 이날 행사를 통해 야간 공부방, 리코더 합주교실, 유도 교실 등 다양한 야간강좌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특히, 테니스 및 배드민턴 교실은 지역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또

한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이영우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교육발전이 곧 경북교육의 미래를 역설했으며, 전원학교 육성이야말로 농촌지역의 교육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을 강조했다.

한편 성주 초전중학교를 포함한 경북도내 12개 전원학교는 e-러닝 교실구축, 우수인력 배치, 강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거점학교로 육성될 계획이다.

성주 초전중학교 주민문화센터 역할

특히, 테니스 및 배드민턴 교실은 지역민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또

부산광역시교육청, ‘국가 교육과정 포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균)은 오는 18일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 교장 교원 1명 및 학부모 대표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단위 ‘국가 교육과정 포럼’을 개최한다.

곽병선 회장(한국교육학회)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세우야 할 중요한 논리’라는 기조 강연, 박정연 교수(부산대)의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추진방향 및 과제’, 이옥식 교장(서울 한가람고)의 ‘교과교실제 시행을 위한 실천적 접근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초·중·고 교원 및 전문가·학부모·지역사회단체대표 6명의 주제 토론으로 운영된다.

포럼은 교육과정 자율화와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을 신장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지원하며, 교과교실제의 실천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지원 및 미래형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혁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 광주 동구 교육 협력 장학사업 등 9개 공동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용하)과 광주 동구(동구청장 유태명) 교육협력·지원을 위한 협정서(MOU) 조인식이 지난 7일 광주동구청 상 황실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동구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공동 사업 발굴과 협정서 작성을 위한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양 기관 관계자, 학부모, 광주 동문회 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협정서 및 합동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학 공동연구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실무기구인 “광주동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학교 간에 이루어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행사로 알려졌다. 광주 김용하 교장은 “광주교육학



유태명 광주동구청장(사진 왼쪽)과 김용하 광주교육청 교육감이 협정서를 들고 있다.

교가 인재 육성 요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학교구성원들의 모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유태명 동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도심공동화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어가는 동구지역을 활성화 하는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사업이 크게 기여하

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배승수 광주동구청장 상임부회장은 “광주 동구와 광주교육청이 서로 상생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며, 침체되어 가는 동구지역과 전통 명문고의 부활을 꿈꾸는 광주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손덕열 기자 sdw@eduyonhap.com

주영길 前 금당중 교장 교육위원 승계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교육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자로 주영길(65) 전 금당중학교 교장이 10일자로 교육위원직을 승계 하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8069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규정 제7조(교육위원의

사임, 퇴직 및 승계)는 “교육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동 법률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교육위원이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자인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력자가 아닌 교육위원예정자 중에서 미리 정한 순위에 따라 교육위원

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31일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회 제2선거구(서구·광산구·남구) 선거에서 125표를 얻은 교육위원 예정자 3순위인 주영길 전 교장이 승계 하게 되었다.

신임 주영길 교육위원의 임기는 윤봉근 위원장의 잔여 임기로 2010년 8월 31일까지이다.

“깨우침의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광주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 수료식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교육장 이상태) 영재교육원은 지난 5일 5개 중삼학교에서 영재학생 284명과 학부모,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을 가졌다.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그 동안 5개(광주계림초, 광주양산초, 경양초, 문우초, 일신초) 중삼학교에서 관내 4.5,6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해 수학과 과학영역으로 나누어 사고력 신장 활동중심의 수업과 개인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문제해결력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재 개발과 열정적인 교사들의 지도력은 284명의 영재학생들의 학구열에 불을 지피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미래



광주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 수료식.

의 꿈나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특히, 교육감 표창을 받은 박정익 학생(계림초, 6년)은 “주말에도 쉬지않고 열린 수업에서 깨우침의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라 미래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12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에서 초, 중, 고 학교 컨설팅 위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선 지원을 실시한 다.

컨설팅은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데 대상 학교로부터 학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컨설팅 영역을 결정한다.

컨설팅 영역은 학교 교육 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교수·학습 개선, 진로 지도, 생활 지도(인성 교육), 방과후 학교,

고 91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우수, 양호, 미흡의 3단계로 평정하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선 지원을 실시한 다.

컨설팅은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데 대상 학교로부터 학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아 컨설팅 영역을 결정한다.

컨설팅 영역은 학교 교육 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교수·학습 개선, 진로 지도, 생활 지도(인성 교육), 방과후 학교,

독서 교육, 문화 예술 교육, 학교 특색 사업, 교직원 연수 등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개선 분야를 선정하여 학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청에서 이를 심사하여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데 학교당 평균 지원 금액은 400만원 정도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윤길 과장에 따르면,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다양해진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려면 학교 교육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동등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Advertisement for KIECO (Clean Energy) featuring a cityscape at night and the slogan '대한민국 Clean Energy의 선두주자, KIECO의 꿈은 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